# REPORT 7주차 결과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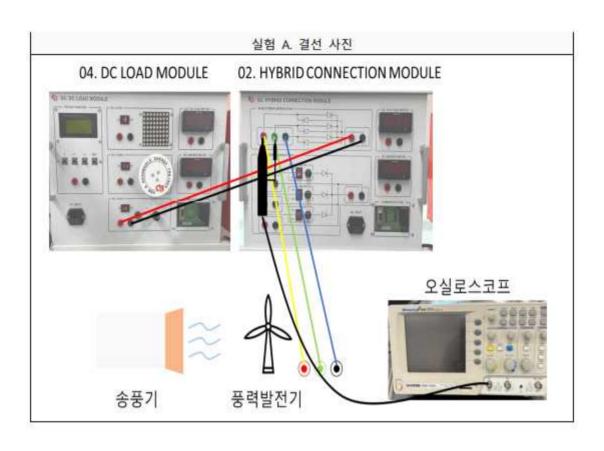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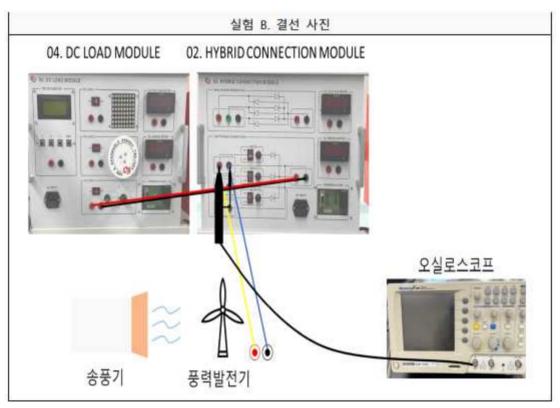
과목명	신개생에너지실험
당당교수	이순명 교수님
학과	융합전가공학과
학년	<b>4</b> 학년
<u></u> 학번	201910906
이름	이학민
계출일	2024.10.17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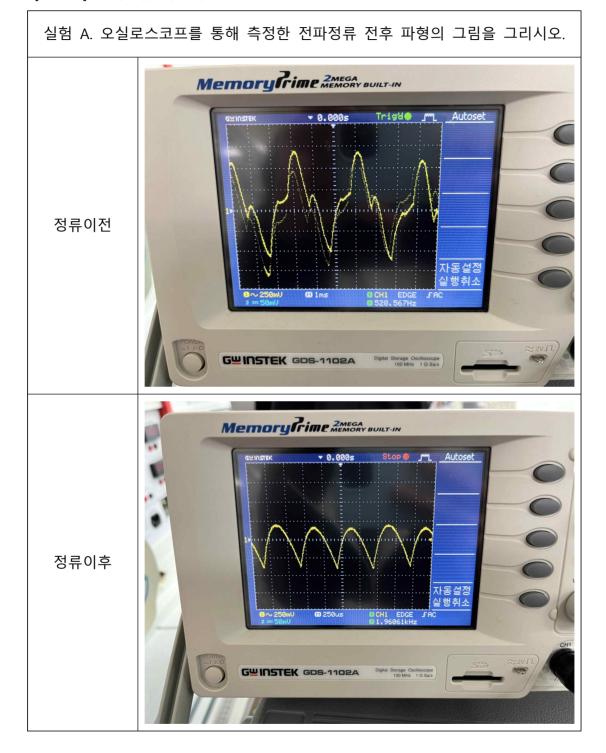
## 실험 05 풍력에너지

AC 풍력발전기의 발전 실험		
실험	- 풍속에 따른 AC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이해한다.	
목표	- 정류회로를 이해한다.	
준비물	송풍기, 풍력발전기, 풍량·풍속계, 02. HYBRID CONNECTION MODULE,	
	04. DC LOAD MODULE, 오실로스코프	
	실험 A. 전파정류 실험	
	① 풍력발전기를 송풍기와 일직선상 30cm 거리에 설치한다.	
	② Load Module 의 전면에 AC 전원을 인가한다.	
	③ 풍력발전기와 Hybrid Connection Module, AC-DC 부하 모듈을 다음과 같이	
	연결한다. 실험 A. 결선 사진 참고	
	<ul> <li>풍력 발전기 AC 단자 3개 - 02.WIND POWER GENERATION 단자 3개</li> <li>02.WIND POWER GENERATION (+) 단자 - 02.전압계(+)</li> </ul>	
	• 02.WIND POWER GENERATION (-) 단자 - 02.전압계(-)	
	• 04.DC LOAD MODULEDC LOAD 3 (+) - 전압계(+)	
	• 04.DC LOAD MODULEDC LOAD 3 (-) - 전류계(+)	
실험	④ 부하 저항을 500Ω으로 맞춘다.	
	⑤ 송풍기에 전원을 인가하여 풍속을 8m/s로 맞춘다.	
	⑥ 오실로스코프를 Hybrid Connection Module 에 연결하고, 그 파형을 촬영한다.	
	⑦ 실험 ⑥의 과정을 <노란색-녹색>, <녹색-파란색>으로 변경해가며 파형을	
	촬영한다.	
	8 오실로스코프의 (+)단자와 (-)단자를 영상과 같이 연결시켜 정류 이후의 파형을 촬영하고, 이를 정류 이전 파형과 비교하여 [표 5-1]에 작성 후 분석한다.	
	실험 B. 반파정류 실험	
	① 송풍기와 풍량·풍속계 사이의 거리를 30cm 가 되게 한다.	
	② 실험 B. 결선 사진과 같이 풍력발전기와 Hybrid Connection Module, AC-DC 부칙 모듈을 연결한다. 이 때, 노란색과 파랑색은 AC 풍력발전기의 임의의 선을 선택하면 된다.	
	③ 부하 저항을 500Ω으로 맞춘다.	
	③ 구약 시청을 30002으로 낮군다. ④ 송풍기에 전원을 인가하여 풍속을 8m/s로 맞춘다.	
	⑤ 오실로스코프를 Hybrid Connection Module 에 연결하여, 그 파형을 촬영한다.	
	⑥ 실험 ⑤의 과정을 풍력발전기의 임의의 선을 변경해가며 파형을 촬영한다.	
	⑦ 오실로스코프의 (+)단자와 (-)단자를 영상과 같이 연결시켜 정류 이후의 파형을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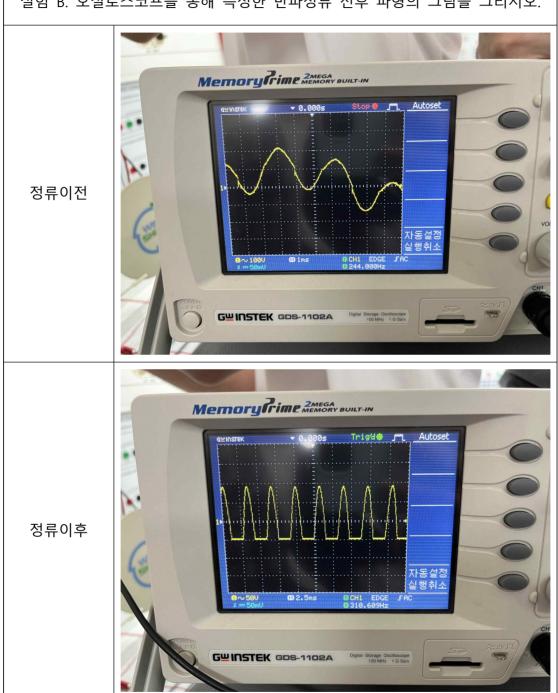


[표 5-1] 전파정류 파형비교



[표 5-2] 반파정류 파형비교

실험 B.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측정한 반파정류 전후 파형의 그림을 그리시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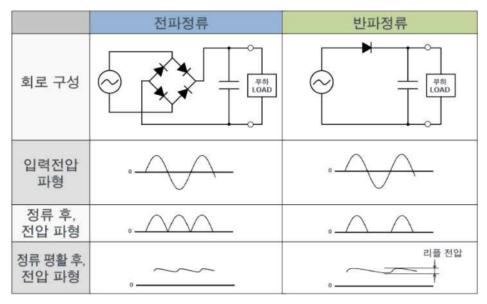
#### 실험결과 분석 및 시사점 작성

※ 전파정류와 반파정류의 차이점을 필수로 포함하여 작성하시오.

#### <실험결과 분석>

AC를 DC로 변환하는 정류 방법에는 전파정류와 반파정류가 있다. 두 가지 모두 다이오드의 정방 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특성을 이용한다.

전파정류는 다이오드를 브릿지 형태의 회로로 구성하고, 반파정류는 다이오드 1개를 이용한다. 이후, 콘덴서의 축방전을 이용하여 파형을 평활화하여 깨끗한 직류를 얻는다.



출처: https://www.rohm.co.kr/electronics-basics/ac-dc-converters/acdc\_what2

정류 후 전압 파형을 비교해보았을 때, 반파정류보다 전파정류가 효율이 높은 정류 방식임을 알수 있다. 또한 평활 후 나타나는 리플 전압은 콘덴서의 용량과 부하에 따라 달라지는데, 동일한 콘덴서 용량 및 부하일 경우, 반파정류보다 전파정류의 리플 전압이 더 작다.

### <시사점>

반파정류에 의해서 AC를 DC로 바꿀 때, 교류 입력신호의 절반이 출력신호에서 버려져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. 또한 반파정류를 통해 만들어지는 직류는 그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.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 축전기를 사용한다. 축전기를 달면 다이오드의 역방향이 걸린 경우에도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가 방전되면서 일정량의 전압을 가해줄 수 있다. 하지만 반파정류의 경우 용량이 큰 축전기를 달더라도 출력전류를 일정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.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이 더 높고 안정성이 큰 전파정류를 사용한다.